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국제 연합(UN) 소식

유엔 총회 긴급 특별 회의: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 가결(4월 7일)

유엔 총회는 지난 4월 7일(현지 시간) 긴급 특별 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하였다.

- 르완다와의 '평행이론'

표결에 앞서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결의안을 소개하며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르완다에서 오는 경고를 '대부분 무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르완다의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점과 르완다 정부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학살을 이어가는 데에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매일같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긴급 특별 회의가 열린 날은 또한 르완다 대학살 기념일이기도 했다.

- 자격 정지의 근거

유엔 인권이사회는 47개국의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러시아는 지난 2021년 1월, 다른 14개국 대표와 함께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유엔 총회는 특정 국가가 조직적인 인권 침해 발생 시킨 경우,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문(A/RES/60/251)에 포함된 권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러시아: '이사회 탈퇴하겠다'

결의문 채택 이후, 겐나디 쿠즈민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이미 임기가 끝나기 전 인권이사회를 떠나겠다고 결정했다'며 '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들에 의해, 그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즈민 차석대사는 이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고, 이들은 또한 인권이사회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기적 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국가의 인권 상황 개선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중국: '위험한 선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장쑤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총회의 성급한 결정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며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불식시키는, 소위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방식에서의 이사국 자격 정지 여부 결정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인권 분야에서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 EU: '보기 드문 결정' 지지

올로프 스퀴그 유럽연합(EU) 대표단장은 '이번 유엔 총회의 보기 드문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유엔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인권 침해를 막는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 미국: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걸음'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독한 인권 침해자가 유엔에서 인권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막는 데에 성공했다'며 '우리는 집단의 노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정당하지 않고, 부정의(不正義)하며 비양심적인 전쟁을 일으킨 데에 대해 러시아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제12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개최, 유엔 인권최고대표 기조연설 진행

제12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유엔 뉴욕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역대 최고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고령화실무그룹에서 기조 연설을 발표했다.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고 운을 뗀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어려운 시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시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집단인 노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 위기, 전쟁 등의 상황으로 인해 노인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노인의 근본적인 건강과 행복이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인권최고대표는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노인 인권의 규범적 기준 및 책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인권 체계는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관련 국제 메커니즘 또한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이러한 국제 메커니즘을 바로 잡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이번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1년간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은 노인 인권과 관련한 도전과제 및 해결책이 될만한 정보들을 수집해 왔다’며 ‘이는 실무그룹의 권한을 이행하여 새로운 인권 협약을 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ohchr.org/en/statements/2022/04/12th-session-open-ended-working-group-ageing>

3. 유엔 난민기구(UNHCR) 소식

유엔 난민기구, 4월 12일 우크라이나 내 인신매매 및 착취와 관련한 유엔 난민기구 보호 부문 대표 성명 발표(요약)

우크라이나 난민 참사는 곧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참사이기도 합니다. 여성과 아동은 현재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성(性)에 기반한 폭력, 인신매매 등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과 많은 어린이가 홀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지만, 다행히 보고된 건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UNHCR은 취약 계층이 무료 이동 수단, 숙소 등을 빌미로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략) 홀로 탈출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난민 지원 기관에 대한 조사도 엄격히 진행하여 범죄조직이 현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법 집행기관 역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가해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UNHCR은 정부와 연계하여 위험에 처한 난민을 찾아내고 인신매매 및 성(性)기반 폭력, 착취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인신매매 위험성 진단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NHCR은 또한 피난민을 대상으로 ‘Stay Safe’ 캠페인을 진행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UNICEF 등 기관과 연계하여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들에서 난민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 기지인 ‘Blue Do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NHCR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인도주의 기관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전 지역, 특히 국경지대에 머무르는 피난민에게 인신매매 신고 핫라인 번호를 제공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구, NGO 등 기관을 포함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출처:
<https://www.unhcr.org/asia/news/press/2022/4/6255a6964/statement-risks-trafficking-exploitation-facing-refugees-ukraine-attributed.html>

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 건강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UN의 인식 관련 논의 진행(4월 12일)

유엔 인권과 환경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 관련 싱크탱크 기관인 '보편적 인권 그룹(the Universal Rights Group)',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엔 환경계획(UNEP), 뉴욕 대학교 등의 단체와 건강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UN 인식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몇 년간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UN의 인식을 제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과 환경 특별보고관과 협업 중인 인권 관련 싱크탱크 기관 '보편적 인권 그룹(the Universal Rights Group)'은 인권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미친 실질적 변화에 대한 정책 보고서(#TheTimesNow)를 2021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 관련 NGO의 환경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아래에서부터의 움직임은 역으로 유엔 산하 기구의 인권 및 환경 관련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과거의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며 환경, 개발 및 인권 문제의 연결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SDG 2030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인간과 환경 관련 결의문(A/HRC/RES/48/13)이 채택되었으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는 해당 결의문이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건강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UN의 인식이 그간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상황분석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리고 환경에 대한 UN의 인식 제고가 인류의 삶과 지구에 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https://ganhri.org/event/expert-seminar-on-right-to-a-clean-healthy-and-sustainable-environment/>

5. 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일 시	회의명
4. 11. - 4. 14.	제12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 아태지역인권기구포럼(APF)

일 시	회의명
5. 4.	APF 회의 - 주관: APF,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코로나19 상황 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역할 증진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이지현 ljh820@nhrc.go.kr